



약물남용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기

《본드·가스 이야기》 펴낸 주왕기 교수

본드와 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백명을 헤아리고, 부모가 구해다 준 것을 마시고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다.

약물남용이 무서운 것은 완치율이 20%에 불과한 중독성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

“몇해전 당국에 청원을 했더니 본드는 상공부 소관이고 가스는 동력자원부 관할이라는 웃지못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이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재를 털어 89년 한국약물남용연구소를 설립했다. 사회조사, 법제정과 개정, 교육과 계몽, 치료와 재활을 통해 약물남용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하는 주교수는 약물예방교육은 ‘세뇌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0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에 춘천시 중심가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약물남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사입니다. 학교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약물을 남용하게 되므로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주교수는 인터뷰 내내 국가가 주도적으로 약물남용문제에 대처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성일 기자

주왕기 교수(56, 강원대 약학과)는 약물남용 연구 분야의 국내 일인자다. 약물남용 관련 서적의 출간, 연구소 설립과 교육계몽사업 등을 꾸준히 벌였다. 주교수의 성가를 파악하게 하는 대목은 약물관련 방송프로그램에서 맡은 자문역. 150여회의 방송출연을 통해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난 5월6일과 13일에 방영된 부산MBC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마약, 그 시작과 끝> 역시 주교수의 식견과 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약물남용은 약물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치료나 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단 약 뿐만 아니라 환각작용을 하는 본드·가스도 주교수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최근 펴낸 《본드·가스 이야기》(강원대출판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환각제 흡입 실태를 파헤친 보고서다.

주왕기 교수는 약의 작용과 효능을 연구하는 약리학이 전공이다. 약에 관해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약물남용 문제로 관심이 옮겨왔다. 74년에는 국내 최초로 도핑테스트를 하기도 했다.

이 책은 약물남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드와 가스 같은 흡입제의 실태를 사례를 곁들여 파악했다. 89년에 주교수가 펴낸 《약물남용》(세계사)이 총론 성격의 입문서라면 이 책은 본드·가스를 다룬 세부작업이다. 본드와 가스의 정의·역사·종류·작용·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고 있는데 기막힌 사례들이 충격적이다.



올바른 TV시청 십계명

《TV에 중독된 내 아이...》 펴낸 김병록씨

교육은 전무한 우리 실정에서 이 책이 눈길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공개된 각종 자료와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케이블TV, 비디오 등 각종 영상매체를 올바르게 시청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덩어리 얻을 수 있다.

TV를 끄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중독증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더불어 TV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올바른 TV 시청 십계명’은 이 책의 핵심사안이다. 몰입시청 안하기, 어린이 혼자 시청하지 않기, 습관적으로 시청하지 않기, 편식시청하지 않기, TV시청일지 작성하기 등 가족단위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된다.

“TV시청에 공식이 있겠습니까. 십계명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만 이 중에서 최소한 몇가지라도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지요.”

김병록씨는 앞으로 소득계층, 가족성원에 따라 TV 시청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밝혀볼 생각이다.

—박남정 기자

김병록씨(33, 뉴미디어 저널 기자)의 별명은 ‘테돌이’다. 텔레비전 보기를 얼마나 즐기면 이런 별명을 얻었을까 싶은데, 그가 최근 《TV에 중독된 내 아이 어떻게 가르칠까》(경인문화사)를 펴냈다.

“21개월된 아들 휘영이가 어느날인가부터 리모콘을 이리저리 돌리고 텔레비전 내용을 이해하는 몸짓을 보면서부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텔레비전은 과연 나쁘기만한 것인가. 아이가 자랄수록 텔레비전 앞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취재도 해서 이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TV보기를 그토록 즐긴다면, 무조건 못보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TV는 ‘마보상자’에서 ‘교육상자’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 책은 그 방법을 흥미로운 사례들과 함께 소개한 일종의 TV시청교육 지침서다.

김병록씨의 TV에 대한 관심은 오래고 깊다. 경희대 방송대학원을 졸업하고 YMCA ‘시청자 시민모임’ ‘건전 비디오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활동했으며 케이블 TV전문지인 《뉴미디어 저널》 기자로 일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게’ 계속됐다. 주목을 끄는 것은 그가 늘 ‘방송생산자’가 아닌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모니터나 비평 작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청자를 위한 올바른 TV 시청





인물을 통한 조선시대 사상 흐름

《조선시대 7인의 정치사상》 펴낸
부남철씨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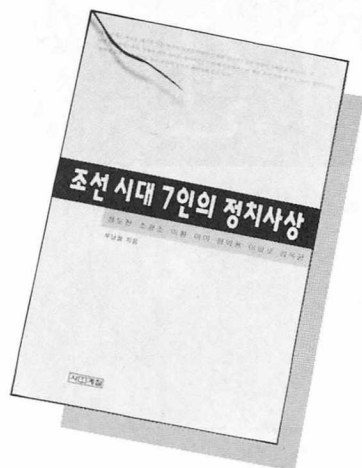
그가 이 책을 통해 보는 역사는 ‘커다란 사상의 물줄기’이다. 그는 각기 등장인물들의 사상적 배후와 상황을 찾아낸다. 그냥 한 사람의 위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인물과 사상이 있게 된 배경과 역사적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다.

“역사인물을 드라마나 지폐에 담긴 초상화 등 ‘이미지’만으로 대하면서 우리는 유교사상은 곧 당파싸움이라는 그릇된 편견을 부지불식 중에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교사상은 분명 우리 역사의 500년을 이끌어온 사상이었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 태생인 저자는 박사학위를 받고 남들이 다 가는 ‘외국’이 아닌 ‘서당’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3년간 동양의 고문독해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는 유교 사상이 지배권력에 의해 작동되는 지배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사상가들에 의해 존속되어 온 사상임을 깨달았다.

이 책을 집필한 그의 의도는 분명하다.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천년의 사상을 준비하는 작업이 자국의 문명사에 대한 자부심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허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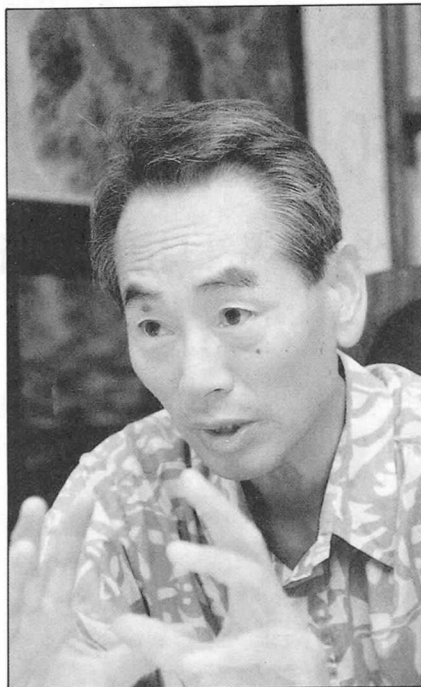
최근 서점가에서 눈에 띄는 출판물 중 하나가 정해진 시기 인류사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들의 삶과 사상을 조망하는 책이다. 그리고 그 책들에서 거론되는 대부분의 인물은 서구인이다. 우리에게 이렇다 할 사상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후세를 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인지. 어쨌든 우리는 서양사상의 눈으로 한 시대를 정리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 속에 한 젊은 대학강사가 쓴 《조선시대 7인의 정치사상》을 만나는 일은 기쁜 일이다.

“이 책에서 거론한 7인의 정치가들은 당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모두 개인과 당파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사상을 펼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남철씨(38, 정치학박사)의 이번 저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교국가의 성립을 주도한 정도전, 원칙과 실천의 정치가 조광조, 유교의 정수를 짚은 사상가 이황, 군주정치의 이론가 이이, 시대를 앞서간 개혁사상가 정약용, 위정척사파의 태두 이항로, 개화사상의 선구자 김옥균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한 시기가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는 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다.

“사회과학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접할 때 진공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유교 정치사상이 서양의 다른 사상처럼 후손들의 역사인식 속에 남아 있지 못한 건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출판사 기획자들과 함께 2년에 걸친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깨닫고



아버지와 딸이 함께 간 꽃길 여행

《꽃길 사진 여행》 펴낸
사진작가 송기엽씨

되는 점이 많았다.

“풍경사진에서 생태 사진으로, 그것도 꽃을 중심에 두기는 한 5년여 되었습니다. 식물학자들과 《야생화-한라에서 백두까지》 작업에 참여하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죠.”

들꽃을 찾는 일이 단발적인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의 야생화》(이영노 감수, 평화출판사)라는 기록을 만들었다. 이 책으로 93년도 출판문화상을 안기도 했다. 생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부상하던 때라 일반인들이 어디서 찍었느냐, 어떻게 찍었느냐는 문의를 해올 정도였다.

“지난번 책이 작품집이라면 이번 책은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진마다 촬영 포인트를 해설하고, 렌즈 종류, 노출, 셔터 속도, 필름 종류 등의 촬영 데이터를 꼼꼼히 단 것이나 찾아가는 길을 붙인 뜻도 바로 이런 데 있다. 꽃이 주는 정서적 감동을 소박한 시로 표현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요즘은 《지리산》《설악산》 등 하나의 산을 테마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자꾸 될 남기려고 하는 걸 보니 40여년 동안 활동해 왔던 현장을 떠날 때가 이제 가까웠나 봅니다.”

—이현주 기자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 사이에도 세대차이가 있다는 우스개말이 떠돌 정도로 세대간의 차이가 심해진 요즘, 육순의 아버지와 20대 중반의 딸이 함께 책을 펴냈다. 평화출판사에서 나온 《꽃길 사진여행》이 그것.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산 속의 꽃길을 사진으로 안내한 책인데, 사진 작가인 아버지는 사진을 찍고 딸은 글을 썼다.

“딸이 사진과 함께 실릴 글을 정리해준 적이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그 글을 보고 의미있는 작업이 될 거라며 제안을 해 왔죠.”

그렇게 시작한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 흘렀다. 기획기간을 빼고 실제로 작업을 한 기간은 1년. 그동안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1개산과 제주도, 태안반도, 홍도, 대관령 등 특색이 있는 지역을 묶어 계절마다 딸과 함께 행장을 꾸렸다.

“딸과 함께 산에 가 꽃을 본다니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험한 산을 타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우선은 꽃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덕분에 낮은 곳에서 꽃을 찾지 못한 경우 산을 못 타는 딸, 송미정씨(26세, 고대 국어교육과 졸업)는 베이스 캠프에 남아 있기도 했다.

“젊은 나도 힘든 산을 아버지가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인 송기엽씨(59세, 사진작가)도 딸이 쓴 시를 보았지만 어딘가에서 옮긴 것이려니 생각했다. 본래 이해가 돈독한 편이었는데도, 가까이서 보니 달리 깨닫게

